

## 딥노이드, 증권신고서 제출! “코스닥 시장 노크”

- ▶ 국내 최다 수준의 식약처 인허가 확보한 의료 AI 솔루션 전문기업
- ▶ 7월 14일~15일 수요예측, 21일~22일 청약을 거쳐 7월 코스닥 상장 예정

<2021-06-21>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딥노이드(대표이사 최우식)는 18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모주식수는 30만 주, 희망공모가밴드는 3만1천5백 원~4만2천 원으로 공모규모는 94.5억 원~126억 원이다. 7월 14일~15일 수요예측과 21일~22일 청약을 거쳐 7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KB증권이다.

2008년 설립된 딥노이드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효율화 툴을 기반으로 의료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의료 AI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의료인의 진단·판독을 보조하는 의료 AI 솔루션 ‘딥에이아이(DEEP:AI)’와 코딩 없이 다양한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인 ‘딥파이(DEEP:PHI)’, AI 솔루션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딥스토어(DEEP:STORE)’, AI 솔루션과 연동되어 의료영상을 조회, 판독, 분석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딥팩스(DEEP:PACS)’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비즈니스의 핵심은 인공지능 효율화 툴을 이용해 딥노이드 주도의 AI 솔루션 개발(파이프라인 비즈니스)과 의료인 주도의 AI 솔루션 개발(플랫폼 비즈니스)을 병행하는 Two-track 사업모델의 운영이다. 회사의 자체 개발 외에도 인공지능 효율화 툴을 이용해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질환 별 AI 솔루션을 연구하고 제품화까지 진행할 수 있어 의료현장에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상 의료 AI 기업이 한 해에 받는 인허가는 5건 이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2020년 한 해에만 14개 솔루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인허가를 획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상장 후 딥노이드는 회사 자체의 AI 솔루션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의료인의 AI 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해 의료 AI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인의 플랫폼 참여 증가는 딥파이를 이용한 AI 솔루션 제품화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AI 솔루션을 탑재한 딥팩스 수요 강화 및 AI 솔루션 거래를 위한 딥스토어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등 국내 주요 상급 종합병원 및 의료 공공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상태로, 회사 자체 개발과 의료인의 실시간 연구 및 제품화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10개 이상의 품목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보안, 국방,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확장과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청과 손잡고 불법 복제품 판독 AI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는 한국공항공사와 제휴를 통해 김포공항 보안검색대 AI 자동 판독 솔루션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딥노이드의 흉부영상 분석 AI 솔루션 ‘딥체스트(DEEP:CHEST)’는 부산대병원과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원격 협진 시스템에 도입됐으며 현지 업체와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유통 준비를 마쳤다.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이사는 “의료 AI에 대한 니즈가 가파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딥파이는 노코딩 기반으로 딥러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연구 및 솔루션 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상장 후 선순환 구조의 의료 AI 생태계를 강화해 건강 회복의 첫걸음인 질환 판별을 지원하고 의료 AI 솔루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딥노이드는 18일 김해 메디컬실용화센터 개관식에 참여해 딥체스트(DEEP:CHEST)를 실연했다. 메디컬실용화센터는 의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의 핵심 시설로, 이날 개관식에선 딥노이드를 비롯해 18개 기업이 홍보부스를 통해 제품을 선보였으며 허성곤 김해시장, 김정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